유의 법만 취하지 말고 무의 법을 좀 활용해 보세요

☞ 19면에서 계속

을 시켜 놓으면 그건 안 되는 법입니다.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이라 하는 건 신통입니다. 신통은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전기도 급할 때 쓰는 거고, 미사일이라는 것도 급할 때, 한생각이면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탐지기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 오신통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상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깁니다.

그거 생각나기 이전 영원한 자기 생명이,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융합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아니라면 오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말로 오신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 번씩들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앉은 자리가 피난처지. 육신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피하려고 애를 써 봐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체험을 해 본 분들은 거기에서 또 능력을 얻는 수도 많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해 보시고 자꾸자꾸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조금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큰 바다의 물을 다 삼켰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삼켰다 내주고 내줬다 삼키기도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했고 부처라고 했고 선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타인으로 인해서나 또는 내가 봐서나 들어서나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의심이 나는 게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시대로 봐서도 그렇고요, 이 조그만 조막댕이만 한 나라에 또 세계적인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안에 말입니다. 손님네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참, 이것도 한 가정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사람이니만큼 남이 잘된다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그렇듯이, 한 사람에게 그렇듯이, 한 나라에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를 내세우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셔도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은 목석인 겁니다, 목석! 생각을 좀 달리해 보고 다녀야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고 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보를 끼고선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 안 해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꼭 해봐야죠. 또 회사에 나가는 사람, 은행에 다니는 사람, 뭐, 기자면 기자,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말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찍힌다 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게 다 공부란 말입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두들 수시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자기가 해 나가야지 누가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그게 체크가 되는 거라, 자기가! 감응이 오는 거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대로 돌아가면 자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 보지 않는 사람, 그냥 물색없이 왔다 갔다 하고는 해 보지 않는 사람, '이거 뭐, 내가 힘이 없는데, 아이, 내가 뭐, 이런 일을….'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해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코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석 아닌 목석이죠. 우리 유의 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 좀 무의 법을 활용해 봐라 이겁니다. 마음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는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면에서 오고 가며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법도 한데 미리 잘못돼 가지고 그걸 방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봐서 '요런 일은 요렇게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것을 못 박아 놓을 수 있는 대로 못 박아 놓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익하지마는 남도 이익하고 또 나라도 이익하고 모두가 이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체험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라 위태한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기복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말만 모두 성하고 나 자신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흉보고 잘못한다 잘한다, 정도다 사도다 하고 비판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영 돌아다볼 사이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부들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백 년 역사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할 때나 맛을 조금씩 본 겁니다, 남이 해 줘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줬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너 잘났다 그러고 해서 몹쓸 일들이 저질러진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 오는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한 자리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세계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왜? 각각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연결이 된다면 죽이려고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칼을 들이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게 우리 인간들이 대성황을 이룰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이 소련으로나 중공으로나 유럽으로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마음을 던져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던져 놓게 되면은 그것이 다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다.
>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할 수 있어야
>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는 데 아주 옥같이 해 놓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따라서 하려도 옥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영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죽을 때서야 "꼭 꼭" 하고 죽더랍니다. 꼭 짜면은…, 허허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는 그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대로 있건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믿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 어떡합니까? 첫째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용을 하지 못하죠? 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지 않죠? 실감 나지 않지? 그렇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는 수가 많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수도 많고 망하는 수도 많고, 이거는 말도 못하죠. 삶의 보람도 없고 그냥 허황되기만 하죠.

이 도리를 안다면 내일 죽고 지금 금방 죽는대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무슨 착잡하거나 또 허황되거나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금방 몸은 벗었으나 금방 내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려면 오늘서부터는 체험을, 사는 데서 체험을 자꾸자꾸 하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입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하시면서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미리 막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려면 미리 막아 두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픈 걸 금방 낫게 해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또 이 몸을, 옷을 벗기고 죽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새 기계를 들여놓고 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여놓은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밑져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문을 닫게 되면 벌써 손해야. 그러니 이것을 한생각 내서 다시 설치하게끔 만들거나 기계를 다시금 똑같을 수 있게 조립을 하거나, 한생각 내면 윗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게끔 돼 있다 이거야. 돼 있는 연후에 가서 말만 띄우면 되는 거라.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떠 넣어 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밥숟가락을 떠 넣어 드려도 먹을 줄을 모른다면 이걸 어떡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해야 될 겁니다.

다니는 회사에 무슨 큰일이 생긴다면 큰일이니까 아예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 보시면서 잘 굴려 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 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신념이 가게끔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3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